

규슈 철도기념관

철도 애호가의 꿈이 가득 담긴 체험형 뮤지엄

구 규슈 철도 본사가 철도의 역사와 놀이로 가득 채워진 박물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활약했던 증기 기관차와 진짜와 똑같은 운전 체험 시설, 미니 열차를 직접 운전하여 선로를 달릴 수 있는 미니철도공원도 있습니다.

미니 열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미니철도공원’

야외에 있는 ‘미니철도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미니 열차를 운전하며 130m의 선로를 달려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열차와 비슷한 운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본 최초의 미니 철도입니다.

과거 활약했던 열차들이 한자리에

기념관 입구는 원래 모지역(현재는 모지코역)이었던 곳입니다. 또한, 과거 규슈의 선로를 측정했을 때의 기점을 나타내는 ‘제로마일’ 표시도 있습니다. 입구 부근에는 옛날에 활약했던 기관차와 열차 차량이 선로를 따라 전시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규슈에서 활약한 증기 기관차 SL9600, 간몬 터널을 통과한 최초의 기관차인 EF10 35 외에도 디젤 기관차와 200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침대차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로도 등재된 벽돌 건물

1891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영국식’과 ‘프랑스식’ 두 가지 방식으로 벽돌이 쌓아져 있는 드문 건물로 일본 등록 유형문화재이기도 합니다. 하층부의 벽돌은 영국식으로 쌓아져 있는데, 벽돌의 긴 면만 있는 단과 짧은 면만 있는 단이 번갈아 가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벽돌은 프랑스식으로 쌓아져 있으며 긴 면과 짧은 면이 번갈아 가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식이 내진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선호되었습니다.

진짜와 똑같은 운전대로 열차 운전에도전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실제 제어반을 사용한 운전 시뮬레이터입니다.

3 단계의 난이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레벨을 선택해 열차 운전에도전할 수 있습니다.

100 년 전의 여행 기분 체험

매포소 근처에서는 메이지 시대(1868~1912)부터 활약해 온 객차의 실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당시 승객과 차장 등의 인형을 배치하고 음향 효과도 더해 과거의 여행 정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좌석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꼭 좌석에 앉아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슈의 철도 대(大) 파노라마

1 층에는 규슈를 모티브로 한 대형 철도 모형이 있습니다. 모지코역과 하카타역 등의 미니어처 역에서 열차가 차례차례로 발차하는 모습을 박력 있는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꼭 철도 대(大) 파노라마를 통해 규슈 일주 여행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 층 바닥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파노라마 모형을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철도 업계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전시 코너

2 층의 전시 코너에서는 철도 업계의 변천을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신에서 전화로의 변천, 승차권 디자인의 변화, 차장이 입는 제복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을 걸쳐 규슈 각지의 열차와 역에서 제공되어 온 다양한 스타일의 도시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별전 전시와 철도 수송에 관한 서적, 신문, 기타 자료를 모아둔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